

1988년 4월 15일

- 1면 그림 「즐거운 저녁」
 2면 '88 올림픽 미술제, 노동미술페 「까막고무신」
 3면 그림을 배웁시다 II 만화(1)
 4면 우리그림 소식, 지역 소식
 5면 특집 지상전시회
 6면 시민미술학교를 마치며

발행인 홍대봉/발행처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발행일 1988년 4월 15일 / 주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836-11, 전화·44-8942

- 신바람 나는 그림
- 함께 누리는 그림
- 참 삶을 지향하는 그림

즐거운 저녁

권운덕 작

모처럼 일찍 저녁상을 물리고 남편과 마주 앉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다

늘 늦는 귀가시간 때문에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불만이었는데, 일찍 들어오는 날을 정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한다.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내일의 희망을 준다 그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힘차게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신념을 세워나가며 생겨난다.

이 그림의 소재를 잡을 때도 남편이 의견을 내주었고 밑그림도 함께 그리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했다



'88 서울 올림픽 미술제의 실과 허

이정아(교사)

역사이래 4천만 한 겨레의 가장 큰 행사로 이름 지어도 좋을 것은 88서울 올림픽 문화행사는 우리 겨레의 크나큰 기쁨이요 자량이며 우리 민족의 끈끈한 저력을 세계앞에 내놓을 절호의 기회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유난히도 다사다난 했던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88올림픽을 기념하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올림픽 미술제에 9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써가며 강행하는 것은 지나친 예산낭비이고 국제적으로 나라망신이라는 비판여론이 일기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국제적으로 초청한 일이므로 진행해야만 한다는 조직위원회의 융통성 없는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우리 미술계의 비탄의 소리는 높아만 갔다 99억이라는 엄청난 예산과 더불어 우리 미술사상 초유의 대규모 행사임을 직시할때 무엇보다 많은 미술인의 환영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발과 이의제기가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들은 무엇인가?

첫째 미술제 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문제로서 그 일정한 선정기준이 없어 일반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국제 운영위원은 정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다수는 미술제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식견, 국제적 영향력이 부족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한국 내에서 주최하는 미술제에 참가하는 외국작가 전원이 외국인에 의해서 선정되어 진다는 것은 그동안 일상적으로 내려왔던 문화계 전반의 관료주의적 편견의 주의와 민족주체사상이 결여된 문화적 사대사상을 다시한번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올 2월에 세계 현대화전과 한국 현대미술전의 선정작가명단이 발표되면서 우리 화단의 거센 반발은 극에 달하

였다 당연히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문화예술의 주도적 위치에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양권 전통 회화전의 기획은 커녕 한국화 부문이 모더니즘 계열의 틀러리나 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것은 민족정신과 전통문화의 뿌리를 짓밟는 무분별한 처사로서 양식을 가진 이 땅의 모든 미술인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일임이 명백하다

이렇듯 미술의 세계성과 서구미술사조에 편중 기획된 반 민족주의적 미술제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여 줄 것이며 한국 주최의 올림픽 미술제를 관람한 세계의 눈들은 무엇을 보고 갈 것이며 우리는 이번 미술제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틈만나면 유구한 수천년의 역사 운운하며 세계속의 눈부신 한국경제와 문화 전반의 혁혁한 발전을 선전하던 우리네 위정자들의 높은 민족 자존의 긍지는 올림픽 미술제 어느 한 모퉁이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음을 이땅의 민족으로서 크나큰 아픔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비판적 여론이 무성한 88올림픽 미술제로 인하여 문화계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표면화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한 논의나 토론을 거쳐서 적극적 개선점을 찾아 나간다면 오히려 전화위 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은폐하거나 회피하여 개선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만 낳을 뿐이라는 우려를 갖게 된다 아무튼 미술계 관계자와 책임자들은 좀더 양식있는 자세로 그동안 만연해왔던 미술계 전반에 걸친 관주도적 권위주의와 사대사상을 뿌리채 청산하여 진솔한 우리그림, 우리 삶에서 나온 우리문화를 보여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미술패 “까막고무신”

지난 3월 10일 안양 중앙교회에서 개최된 제 1회 안양노동문화제에 노동자들이 직접 제작한 대형 걸개그림 “우리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참석한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관심과 열띤 찬사를 받았다 안양지역 9개 민주노조 주최로 거행되었던 노동문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었던 이 그림은 대우전자 부품 노동조합의 여성조합원 7명이 10여 일간에 걸친 토론, 밑그림그리기, 채색하기, 마무리작업 등의 작업과정을 통해서 공동제작된 것이다

특히 이날 노동문화제 행사가 끝난후 작품평가를 위한 뒷풀이 모임 과정에서 작품제작에 참여했던 참여자 전원이 앞으로 노동자 미술패를 만들기로 합의 하였고 모임의 대표를 선출하고 즉석에서 미술패의 이름을 “까막 고무신”이라 명명 하였다

노동문화의 불모지였던 안양지역에서 노동문화제와 함께 출발하는 까막고무신은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회원 서로간의 친목도모를 꾀하고 미술기능 습득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문화생활에 활력소가 되기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하면서 이날의 모임을 마무리 하였다



대우전자부품 노동자 그림패 까막고무신이 공동제작한 “우리들의 이야기” 노동문화 큰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었다.

공동작업을 마치고...

정현옥(까막고무신 회장)

작업을 통해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무척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행사와는 다른 대우가 필요한 노동절 행사.

많은 노동자의 피로와 어려움을 한마당 안에 모여서 풀 수 있어야 할 우리의 날이었기에 좀더 많은 욕심이 났던 것일게다.

짧은 시간 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의 현장, 그러나 땀뻑하게 내보일 수 없는 피곤함에 내보일 수 없는 피곤함에 찌들린 울상된 표정들, 그런 우리의 모습을 3 개의 화폭에 옮겨낸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서로의 머리를 맞대어 의견을 모으고 밑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들의 직업에 대한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리에게 던져진 사회의 냉담한 시선과 합동작업에 대한 모두의 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비판한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싶다.

작업시간이 맞지 않아 어렵게 완성된 우리의 모습, 좁은 기숙사의 어수선했고 12시간 근무의 지친 모습, 거리의 화려함에 휩쓸려 버린 육체의 빈수레 같은 허무함, 마무리 선을 잇고 두눈 가득 밀려오는 장면 장면들

완성된 우리의 모습에 한없이 기쁘고 들뜬 마음은 가슴 가득 하였지만 한편 가슴깊이에서 쓰라린 아픔이 배어나오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 기쁜 노동절에 화려한 한 뭉치를 담당해야 할 벽화에 좀더 밝은 외면을 그려내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서글웠다.

마지막으로 함께 마무리 작업까지 같이 한 모두의 가슴에 이 미흡한 글로는 못 다 적을 뿌듯함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동미술 전문 교육기관

“이런 어린이를 맡겨 주세요”



- 미술이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1~6학년의 어린이
- 미술성적(실기 이론)이 저하되는 어린이
- 장난이 심하고 정서가 불안하며 산만한 어린이
- 유치부 어린이중 미술을 좋아하는 취학전의 어린이



43-3261 버스운행



화랑미술학원

해바라기 유치원과 화랑미술학원은 같은 교육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만화란 무엇인가

어린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누구나 한두번쯤 담장 학교변소등등의 벽면에 이런저런 글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잘 그리고 못그리고를 떠나서 간단한 선을 사용, 자신이 표현하려는 대상을 단순화시키고 또는 과장, 왜곡하여 하고싶은 이야기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그런 어린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린다는 행위는 가장 자연스럽게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놀이성을 갖춘 자기 표현의 방법임을 알 것이다 이러한 양식이 곧 만화이며 그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신바람 놀이 자기 표현성 등이 “똑같이 그리기”에 밀려 잘 그렸냐 못 그렸냐의 세련미로 판단하는 가치기준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소수 전문가들에 의해 창작되고 향유되면서 서로의 공감대나 감동을 상호전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 일하는 사람들은 단지 감상자 차원에 머물거나 아예 무관심해 버린다

이 시점에서 만화는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여 스스로 자기표현의 통로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상업성, 허구성, 오락성에 기초한 기존만화의 현실도 우리 스스로 창작하고 향유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과 밀접한 독자적 문예의 장르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만화의 형식과 내용

만화를 양식적으로 분류해보면 한칸만화, 네칸만화, 단편만화, 장편만화, 동화(動畵) 등으로 구분지을수 있다

한칸만화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한칸짜리 시사만평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림과 글이 서로 보완적인 요소로 결합된다 네칸만화는 신문 시사만화와 우스개 만화로 나눌 수 있으며 시사만화는 우리나라 일간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양식이다 단편만화는 잡지 등에 연재되는 독립된 주제를 가진 만화로 「고인돌」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장편만화는 흔히 극화라고 통칭되는 이야기그림으로 복잡한 구조에 다양한 인물을 가진 만화로서 현재 만화문화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동화(動畵)는 글자 그대로 움직이는 만화로 만화영화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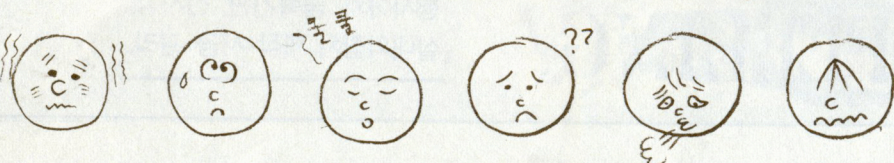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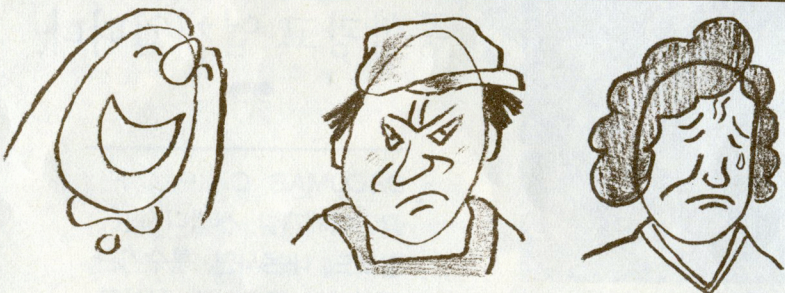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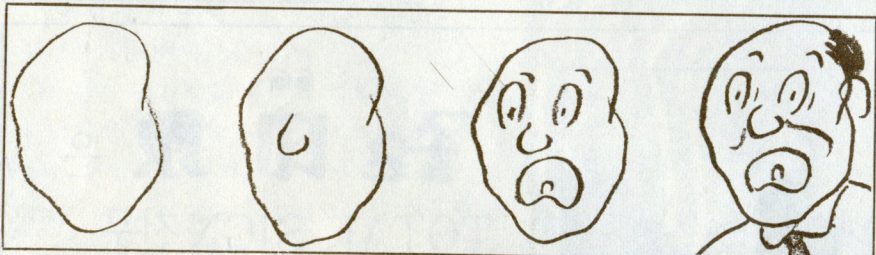
만화를 그리는 방법

만화를 그리는 자세

- 자신있고 솔직하게 그리자
- 좋은 그림은 자주 모사해보자
- 자기삶의 주변에서 좋은장면을 기억해 두었다가 기억하여 그리자
- 선의 사용법은 천천히 그릴 때 표현하려는 바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 자신의 그림을 친구들에게 자주보여 줌으로써 평가받고 다듬어 나간다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쉬운 얼굴 그리기 - 4 단계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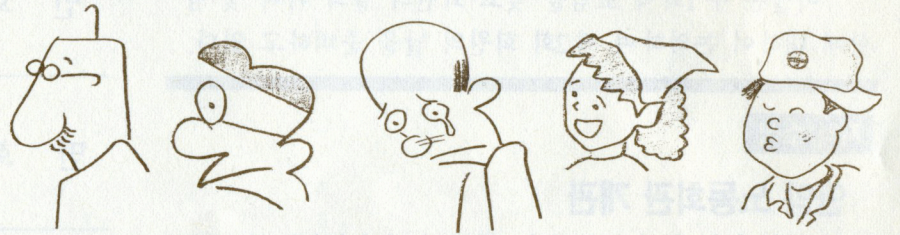
- 1 단계 자연스러운 원을그린다
- 2 단계 이 원형속에 감자모양이나 감자모양이나 갈퀴리모양의 코를 그려 넣는다
- 3 단계 코위로는 점이나 선을 이용하여 눈을 그려 넣고 코밑으로는 웃음, 울음 화냄, 놀람등의 입모양을 표현한 입을 그려 넣는다
- 4 단계 마지막으로 여기에 귀, 주름, 머리카락 모자 안경 넥타이 등을 그려 넣으면 재미있는 얼굴이 탄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의 만화는 언제 어디서나 잠깐의 시간을 이용하여 낙서하듯이 자주 그려보는 것이 좋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인물만화의 주요 요소는 눈 코, 입의 모양세 및 배치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구별은 머리모양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어린아이는 눈코입을 모아 그리고 이마가 넓다 나이가 들수록 눈코입의 사이가 벌어지며 주름 수염을 그려주고 눈의 비중을 줄인다

전형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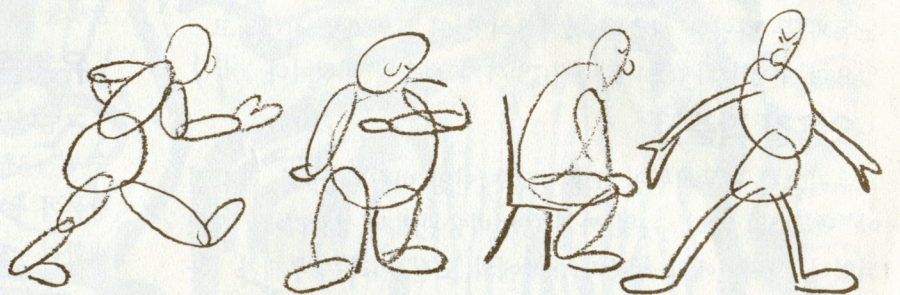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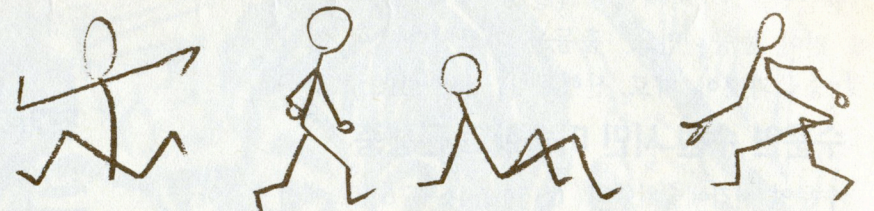
전형이란 우리들의 삶속에 나타난 많은 모습들을 대표할만한 보편적인 성격을 가르킨다 만화에서 전형성을 획득하는것은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것이다 4대 일간지의 네칸만화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간단한 선으로(눈 코 입) 셀러리맨의 몇가지 특징을 전형화시켜 강조한것임을 알수있다 자기 삶의 주변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예 주부,노동자,학생,등등...) 그려보고 친구들에게 보여 조언을 얻고 다듬어 간다면 좋은 전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전신을 그리는법

전신그리기는 다양한방법이 있으나 2가지만 소개하겠다

원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머리, 목, 동체, 팔, 다리, 발의 순서고 가볍게 그려나가고 이 밑그림위에 다시 정리된 선으로 다듬고 불필요한 선을 모두 지운다 몸동작의 기본은 걷기, 뛰기, 앉기, 눕기등의 동작이 있고 이를 응용하면 수많은 동작을 만들어 낼수 있다



이상의 얼굴그리기와 몸동작 그리기를 습득하여 다양한 표정과 몸동작을 만들어 보자 (1부끝 2부 · 한칸만화 및 네칸만화 그리기)

※ 독자분의 만화투고를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소식지에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린힐노동참사위령제에부쳐

누이여! 그땃힌한 품지말고
영혼으로 승화되어
노동자를 지키는 누이장군 되어다오
너의 가슴 아픈 죽음을
기억하는 모든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복돋아주고
그들이 일하는 작업현장 곳곳에서
갓가지 재앙과 억압 불평등을 막아내는
영혼한 수호신이 되어다오

-이명자의 비나리중에서-

우리그림 회원일동

회원의 날 회원 스스로 꾸려...

지난 3월 18일에 있었던 제 1회 우리그림 회원의 날은 참석한 회원들 사이에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의미있는 행사였다

이날 토론의 내용은 우리그림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구체적 이해 또 회원들과의 연결고리를 갖는 문제가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그 결과 앞으로 있을 회원의 날은 회원들 스스로 꾸려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회원 중에서 회원의 날을 준비하는 일꾼이 선출되었다

선출된 일꾼은 대표에 권애숙(회사원)과 한동희 서예학원장 임효숙(유치원장)등 3명이다

이들은 주 1회씩 모임을 갖고 회원의 날의 취지 및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며 제 2회 회원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소식

안양 노동회관 개관

박달동 안양노동회관이 지난 3월 27일 열림잔치를 시작으로 개관되었다 노동회관은 노동자들이 편히 쉬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노래반, 풍물반, 연극반, 운동반 등을 운영하며, 노동자들의 일상적 고민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안양독서회 노동자 독서교실간담회

안양독서회는 지난 4월 10일 독서한마당을 개최한데 이어 생산현장에서 직접 노동하며 느끼고 생각한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노동자 독서교실”을 준비하고 있다

4월 17일 (일) 오후 6시 독서회 사무실에서 그 예비모임이 있다 (46-8929)

안양민요연구회 풍물·민요강습

안양민요연구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총 10회에 걸친 강좌를 열어 풍물 민요, 춤등을 가르친다 이 강좌는 및 중급 과정이 따로 진행된다 (48-1095)

수문연 수원 시민 미술학교 진행중

수문연 시각예술위원회 (0331-46-7690) 에서 주관하는 수원 시민미술학교가 지난 3월 26일 시작되었다. 미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행사에는 주부, 교사, 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가하여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 2회(화 목)로 5월 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오용길 작품전

우리그림 자문위원인 오용길교수(안양 미협회장)의 작품전이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동덕미술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자연에의 사랑과 대작에의 도전”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전시회에는 백호에서 오백호에 이르는 대작 산수화 서른점이 전시되었다.

제 2회 회원의 날은 4월 23일 토요일이며 내용은 무속화에 대한 강좌와 노래 배우기 자기그림 발표 등이다

미술강좌안내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그림에서는 수채화 만화 민화 관화 강좌를 개설합니다. 겨우내 움추렸던 몸을 활짝 펴고 마음껏 우리의 생활정서를 표현해 봅시다

과 목	내 용	시 간
수채화	수채기법 이해 스케치 수채이론 및 크로키	4.7~5.30 월, 목 7:30~ 9:30
민 화	민화기법 및 이론 전통민화 습작 창작민화, 탕화전학	4.8~5.31 화, 금 7:30~ 9:30
만 화	인물표정, 몸동작그리기, 한칸, 네칸만화 만화예술론 창작만화	4.7~5.30 월, 목 7:30~ 9:30
관 화	관화이론 및 기법 채색관화 다색관화 관화매체활용	4.8~5.31 화, 금 7:30~ 9:30

미술계 소식

생활미술 7일 장터

우리의 정서가 담긴 토우 작은 조각품이나 밥주발, 다기, 목걸이 재털이 등 생활미술품이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그림마당 민에서 전시 판매된다

그림과 시의 만남전

우리가 평소에 공감하거나 좋아하여 아끼며 읽은 시와 그림이 함께 어우러진 시화가 전시된다. 4월 16일부터 5월 13일 까지 서울한강미술관 334-1077

경기대, 4 19주제 미술 대동잔치

경기대학교 수원 총학생회에서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4 19정신을 계승하고 대학문화의 질적 향상과 정서함양에 목적을 두고 걸개그림, 관화로 표현된 4 19주제 미술대동제를 개최한다

유홍준 개인소장 미술도서자료 공개

그림마당 민에서는 화요미술강좌“젊은 작가를 위한 한국미술사”(3월 22일~6월 28일)를 개설하면서 강좌를 맡은 미술평론가 유홍준 선생의 개인소장 미술도서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한다. 자료의 내용은 미학 미술사학 미술비평 서적 및 도록 기타 문화일반도서 등이며 4월 22일 까지 그림마당 민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734-9662)



후원회원모집

우리그림의 뜻에 동의하시는 여러분의 후원금은 우리 그림 사업 재정에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

우리그림의 운영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월회비를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구좌

국민은행 209-01-0406-531
조흥은행 503-6-220777
경기은행 64-37-845634
예금주 박찬웅

P.O.P의 신소재와
새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 도심지
- 건물내부
- 야외 자연경관
- 도로 · 철로변
- 거리 · 공원



이땅위에 새로운 질서를...

A GOOD FEELING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5-12
Tel. 552-7743, 553-7741

“
좋은 印象은
TOTAL SIGN 전문
종합광고 업체입니다.
”

DECOMAS, C I P C F
광고매체개발 산업디자인,
빌보드, 네온사인, 특수간판,
행사아치, 금속간판, 전시장,
실내외장치 제작·시공 관리.